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12월 10일

ISSN 1976-0507 Vol. 3 No. 54

경제제재하 이란의 대외경제동향과 이란·중국관계의 발전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윤서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syyun@kiep.go.kr, Tel:3460-1040)

- ▣ 미국과 UN은 이란의 핵확산 의도 및 테러리즘 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은 1987년 이래로 단계적 제재 강화를 통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금지와 금융제재 등 포괄적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UN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무기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 미국과 UN의 제재조치가 이란의 교역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은 미미하나 에너지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간접적 보이콧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교역은 고유가를 배경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UN의 제재조치로 이란 에너지부문 투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서방 국가 및 친미국가의 이란 에너지개발 투자가 축소 또는 보류되고 있음.
- ▣ 핵개발 사태와 고유가라는 정치·경제 여건하에서 중국이 이란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고유가시기 이후 양국간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음.
 - 또한 2002년 촉발된 이란 핵 사태 이후 유럽 에너지기업의 이란 진출이 크게 둔화되자 이를 계기로 중국 에너지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우리 역시 이란과의 경제협력 여지가 큰 만큼 향후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에 대비한 이란 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등 잠재국가로서 이란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문제 제기

- 에너지자원 부국인 이란은 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개발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란은 세계 2위의 원유(전 세계 매장량의 10%)와 천연가스(전 세계 매장량의 16%) 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임.
 - 또한 이란은 인구 7,000만 명의 시장과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영토, 상대적으로 발달된 농업 및 제조업 기반 등을 바탕으로 주변 중동 산유국과 차별화되는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핵개발로 인한 미국 및 UN의 제재조치와 강경보수파인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이슬람근본주의 · 반미노선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키며 이란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대외경제협력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란 대외경제관계의 변화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에너지상류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동향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란의 교역 및 에너지상류부문 외국인 참여 등 대외경제협력의 최근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표 1.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십억 달러)	157	189	223	286	337	359
실질 GDP 성장률(%)	5.1	4.7	5.8	7.8	6.5	0.5
인구(백만 명)	70.0	70.8	71.6	72.4	73.3	74.2
1인당 GDP(PPP, 달러)	8,434	8,967	9,686	10,598	11,418	11,478
실업률(%)	11.2	12.1	12.1	12.3	12.5	12.9
물가상승률(%)	14.7	13.4	11.6	17.1	25.5	15.8
수출액(십억 달러)	44	64	76	97	98	70
수입액(십억 달러)	38	43	50	57	67	57
경상수지(십억 달러)	1	17	20	34	20	2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전망치임.
자료: EIU.

글상자.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조치

미국과 UN은 이란의 핵확산 의도 및 테러리즘 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이란에 대한 포괄적 무역 및 투자 제재, 둘째, 이란의 핵확산 및 테러지원 관련 거래를 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에 대한 법적 제재, 셋째, 핵확산 및 테러 관련 단체와 연관이 있는 대상의 자산동결 및 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금지조치인 금융제재이다. 미국정부의 제재조치로 미국 개인 및 기업과 이란 간의 교역 및 투자활동은 대부분 금지된다. 또한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및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을 통해 미국기업은 물론 제3국 기업의 이란 에너지개발 투자(2,000만 달러 이상)도 금지하고 있다. 이란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핵개발 및 테러지원 자금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한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국제사회는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친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UN의 제재조치는 핵 관련 물질 및 기술의 교역금지와 관련 개인과 기관의 자산동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과 UN의 대이란 경제제재 주요 내용

	제재조치	주요 내용
미국	미국기업의 대이란 교역 · 투자 금지	-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재강화를 통해 미국 국적의 개인 · 기관의 대이란 교역 및 투자를 금지(단, 2000년 일부품목 교역 허용)
	외국(국가 및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이란 교역 · 투자 금지	- 이란 · 북한 · 시리아 비확산법(2000년): 대량살상무기 또는 미사일프로그램 등 관련 제재 - 이란 · 이라크 무기 비확산법(1992년): 상업통제목록 또는 재래식무기 등 관련 제재 - 이란제재법(1996년): 이란 에너지개발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대량살상무기 혹은 최신 재래식 무기 관련 제재
	금융제재	- 핵확산 및 테러 관련 금융자산 동결 및 미국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금지(2001년, 2005년 등)
UN	1차 이란 제재 결의안 1737호 (2006.12)	- 핵, 미사일, 핵확산, 핵무기 운송시스템과 관계가 있는 물질 및 기술의 대이란 수출 제재 - 관련 기관의 자산동결
	2차 이란 제재 결의안 1747호 (2007.3)	- 이란 Sepah 은행, 이란 이슬람혁명수비군 부속기관 등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및 자산동결 - UN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의 대이란 신규 금융지원 및 양허성 차관제공 금지촉구
	3차 이란 제재 결의안 1803호 (2008.3)	- 핵 관련 이중용도(민간 및 군용사용) 품목 · 기술의 교역을 제재 대상에 포함 - 1 · 2차 제재 결의안의 연장선상에서 여행금지 및 제한, 자산 동결 대상이 추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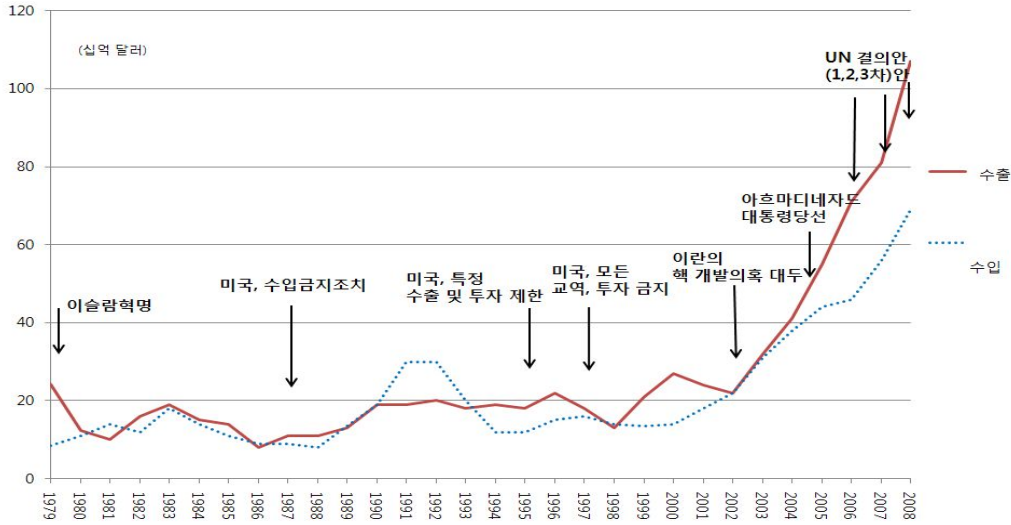
자료: GAO(2007); Kenneth(2009);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작성.

2. 이란의 교역동향

가. 고유가를 배경으로 교역규모 급증, 경제제재 효과는 미미

- 이란의 교역규모는 2003년 시작된 고유가를 배경으로 매년 급증하였음.
 - 이란의 2008년 수출규모는 1,070억 달러로 2003년(320억 달러) 이후 최근 5년간 수출금액이 230%가량 증가함.
 - 이란의 2008년 수입규모는 690억 달러로 2003년(310억 달러) 이후 최근 5년간 수입금액이 120%가량 증가함.
 - 이란 교역 증가의 주요 배경은 2003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함.
 - 이란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이 수출 증가로 이어짐.
 - 한편 국제유가 상승 및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활황으로 수입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전체 수입의 45%, 자본재가 37%, 소비재가 18%를 차지함.
- 미국과 UN의 경제제재조치가 이란의 교역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은 1987년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이란과의 모든 교역 및 투자를 금지하는 등 포괄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동 조치가 이란 교역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미국의 교역금지 조치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교역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와 일본, 한국 등으로 교역선이 대체됨.
 -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UN의 대이란 제재조치의 경우 핵관련 품목 및 기술의 교역을 제재대상으로 한 관계로 이란의 교역 전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함.

그림 1. 이란의 교역 추이(1979~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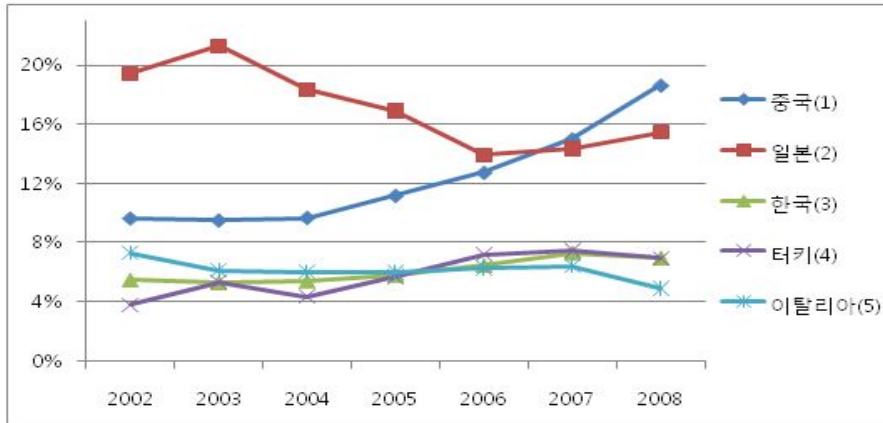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나. 새로운 교역파트너로서 중국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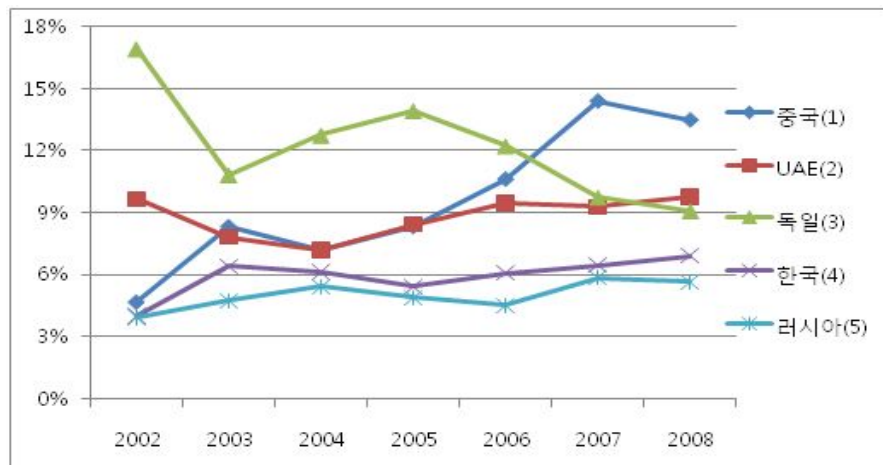
- 이란과 중국 간의 교역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이 이란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2008년 이란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200억 달러로 총 수출의 18.6%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이 이란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 이란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2002년(21억 달러, 총 수출의 9.6%)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 특히 한국(7.0%)과 중국(18.6%), 일본(15.4%) 3개국으로의 수출이 이란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이란과 동북아국가 간의 에너지 교역이 확대됨.
 - 한편 2008년 이란의 대중국 수입금액은 93억 달러로 총 수입의 13.5%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이 이란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 이란의 대중국 수입금액은 2002년(10억 달러, 총 수입의 4.7%) 대비 9배가량 급증하였음.

그림 2. 이란의 5대 수출대상국의 점유율 추이(2002~08년)



주: () 안은 순위임.
 자료: IMF(2009.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그림 3. 이란의 5대 수입대상국의 점유율 추이(2002~08년)



주: () 안은 순위임.
 자료: IMF(2009.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중국 등 아시아국가와의 교역 증가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과의 교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는데, 특히 수입비중 축소가 두드러짐.

- 이란의 총수출에서 EU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1.8%에서 2008년 17.9%로 3.9%포인트 축소됨.
- 2002년 이란의 전체 수출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3%(3위)와 3.2%(7위)였으나 2008년에는 각각 4.9%(5위)와 2.9%(9위)로 감소하였음.
- 이란의 총수입에서 EU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1.1%에서 2008년 25.6%로 무려 15.5%포인트가 축소됨.

○ 2002년 이란의 전체 수입에서 독일과 스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9%(1위)와 8.9%(3위)였으나 2008년에는 각각 9.1%(3위)와 1.2%(18위)로 감소하였음.

■ 2000년 미국의 대이란 교역제재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으나 교역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 미국은 2000년의 이란산(産) 식품과 카펫의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같은 해에 「무역제재개혁 및 수출증진법(Trade 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을 통해 식품, 농산품, 의약품 등 특정 품목의 대이란 수출을 허용함.

- 그러나 교역 허용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2008년 양국간 교역금액은 2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함.

표 2. 이란의 10대 수출대상국 현황(2002년, 2008년)

(단위: 백만 달러)

2002년				2008년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일본	4,311	19.4%	1	중국	20,019	18.6%
2	중국	2,133	9.6%	2	일본	16,587	15.4%
3	이탈리아	1,620	7.3%	3	한국	7,476	7.0%
4	한국	1,214	5.5%	4	터키	7,454	6.9%
5	남아공	917	4.1%	5	이탈리아	5,269	4.9%
6	터키	837	3.8%	6	스페인	4,069	3.8%
7	프랑스	720	3.2%	7	네덜란드	3,652	3.4%
8	스페인	639	2.9%	8	남아공	3,394	3.2%
9	네덜란드	620	2.8%	9	프랑스	3,167	2.9%
10	싱가포르	543	2.5%	10	싱가포르	1,450	1.4%
	기타	8,622	38.9%		기타	34,876	32.5%
	총계	22,176	100.0%		총계	107,413	100.0%

자료: IMF(2009.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표 3. 이란의 10대 수입대상국 현황(2002년, 2008년)

(단위: 백만 달러)

2002년				2008년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독일	3,777	16.9%	1	중국	9,337	13.5%
2	UAE	2,152	9.6%	2	UAE	6,766	9.8%
3	스위스	1,989	8.9%	3	독일	6,298	9.1%
4	이탈리아	1,389	6.2%	4	한국	4,777	6.9%
5	프랑스	1,318	5.9%	5	러시아	3,911	5.6%
6	중국	1,046	4.7%	6	이탈리아	3,506	5.1%
7	한국	894	4.0%	7	프랑스	2,903	4.2%
8	러시아	874	3.9%	8	인도	2,645	3.8%
9	브라질	843	3.8%	9	브라질	2,244	3.2%
10	영국	769	3.4%	10	터키	2,233	3.2%
	기타	7,273	32.6%		기타	24,753	35.7%
	총계	22,324	100.0%		총계	69,374	100.0%

자료: IMF(2009.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다. 이란의 대중국 교역품목

■ 이란의 대중국 수출은 광물성연료와 광물 등 광물성 생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함.

- 광물성연료의 수출이 전체 대중국 수출금액의 85.7%로 절대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광물 수출이 5.7%를 차지함.

표 4. 이란의 7대 대중국 수출 품목(2008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2단위	품목명	2002 (A)	2008 (B)	2008년 비중	증가율 ((B-A)/A)
전체			2,346	19,594	100.0%	735%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2,079	16,799	85.7%	708%
2	26	광, 슬랙, 회	70	1,125	5.7%	1,513%
3	29	유기화학품	67	828	4.2%	1,133%
4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37	442	2.3%	1,108%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1	241	1.2%	487%
6	74	동과 그제품	6	73	0.4%	1,197%
7	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5	40	0.2%	748%

주: UN Comtrade의 중국의 대이란 수입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
 자료: UN Comtrade.

■ 이란의 중국산 석유류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기계류와 전기기기, 차량, 철강 및 철강제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2년 이란의 대중국 인조장석유 수입금액은 2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7.7%(HS 2단위 기준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 수입액은 1억 5,000만 달러로 수입비중이 1.8%(11위)로 급감함.
- 반면 기계류와 전기기기, 차량, 철강 및 철강제품 등 중국산 제조업 제품과 중화학제품의 이란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5. 이란의 15대 대중국 수입 품목(2008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2단위	품목명	2002 (A)	2008 (B)	2008년 비중	증가율 ((B-A)/A)
전체			1,339	8,163	100.0%	510%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97	1,543	18.9%	420%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47	1,141	14.0%	676%
3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8	1,039	12.7%	862%

〈표 5〉 계속

순위	HS 2단위	품목명	2002 (A)	2008 (B)	2008년 비중	증가율 ((B-A)/A)
4	72	철강	12	746	9.1%	6,117%
5	73	철강의 제품	43	539	6.6%	1,154%
6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3	297	3.6%	2,185%
7	29	유기화학품	39	204	2.5%	423%
8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3	160	2.0%	5,233%
9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6	154	1.9%	2,467%
10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78	146	1.8%	87%
11	54	인조장섬유	237	145	1.8%	-39%
12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4	131	1.6%	3,175%
13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4	131	1.6%	446%
14	70	유리와 유리제품	12	129	1.6%	975%
15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무기화합물	50	125	1.5%	150%

주: UN Comtrade의 중국의 대이란 수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
 자료: UN Comtrade.

3. 외국기업의 이란 에너지상류부문 참여 동향

가. 미국, 자국기업 진출 원천봉쇄

- 미국정부의 투자제재로 현재까지 미국 오일메이저의 이란 에너지 상류부문 참여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 미국은 1995년 3월, 대통령령 12957호의 제정을 통해 미국기업의 이란 석유개발 참여를 금지함.
 - 같은 해 3월, 미국 Conoco는 이란 에너지상류부문 개발을 위한 최초의 계약을 이란 국영석유회사로부터 낙찰받았으나 미국의 제재조치로 참여가 무산됨.
 - 결국 동 계약은 Conoco와 입찰경쟁을 벌였던 프랑스 Total이 1995년 7월에 체결함.
 - 한편 미국은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을 통해 제3국 기업의 이란 에너지개발 투자(2,000만 달러 이상)도 금지하고 있음.

- 동 조치가 이란 에너지개발에 참여한 외국에너지기업 제재에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외국기업의 이란 진출을 억제하는 간접적 보이콧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나. 유럽, 핵사태 이후 진출 둔화

- 1995년 이란의 석유상류부문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유럽 주요국 에너지기업의 참여가 대단히 활발함.
 - 1995년 최초의 계약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체결된 13건의 계약 가운데 10건의 계약이 Total(프랑스), Shell(영국), Eni(이탈리아) 등 오일메이저를 포함한 유럽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체결됨.
- 그러나 2002년 이란의 군사용 핵개발 의혹이 대두된 이후 유럽 오일메이저의 이란 진출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최근 투자 보류 및 철수 결정이 잇따름.
 - 특히 2005년 강경보수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UN 제재 등)이 심화되면서 유럽 에너지기업의 사업여건은 더욱 악화됨.
 - 2008년 5월, Shell(영국)과 Repsol(스페인)은 LNG 수출 프로젝트인 South Pars 13·14단계사업(2007년 계약 체결) 철수를 발표함.
 - 2008년 7월, South Pars의 초기 투자자인 Total(프랑스)과 Petronas(말레이시아)가 South Pars 11단계사업의 보류를 결정함.

다. 중국, 2004년 이후 진출 활발

- 이란 핵사태를 계기로 서방 에너지기업의 이란 진출이 둔화된 가운데 2004년 이후 중국의 이란 에너지개발 참여가 활발히 진행 중임.
 - 이란 핵사태를 계기로 유럽 에너지기업의 이란 진출이 크게 둔화되자 중국 에너지기업은 이를 이란 에너지부문 진출의 기회로 활용함.
 - 2004년 중국 국영기업 Zhuhai Zhenrong과 이란 간의 25년간 1억 1,000만 톤의 LNG 공급계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에너지협력 및 중국기업의 이란 에너지상류부문 참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이후 중국은 이란의 신규 탐사·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 프랑스의 투자보류로 지연 중인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이란정부와 개발참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에너지자원 안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표 6. 중국의 이란 에너지상류부문 참여 현황

2005년	CNPC, 이란 Kuhdasht 광구 탐사계약 체결
2006년	Sinopec, Gamsar 광구 탐사계약 체결
2007년	Sinopec, 중국기업 최초로 이란 유전개발(Yadavaran 유전) 계약 체결(20억 달러 규모, 추정매장량 170억 배럴)
2009년	CNPC, Azadegan 1단계(북부) 개발계약 체결
	CNPC, Azadegan 2단계(남부) 개발사업에 대한 70% 지분인수 MOU 체결(기존 계약자인 Inpex(일본)은 사업지연으로 지분 축소)
	CNOOC, 160억 달러 규모의 North Pars 가스전 개발 및 LNG 플랜트 건설사업의 지분(50:50) 최종 합의(2006년 예비협정 체결)
	CNPC, Total과 Petronas의 투자보류로 지연 중인 South Pars 11단계 프로젝트에 대해 이란과 계약 체결(47억 달러 규모) 합의

자료: 한국석유공사(2008.12); Katzman(2009);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필자정리.

라. 기타 국가

- 일본 Inpex는 2001년부터 이란정부와의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04년 Azadegan 유전 남부지역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란 제재에 따른 사업위험성으로 동 개발 사업을 대폭 축소함.
 - 일본 Inpex는 동 유전 개발에 대해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란 정부가 일본의 개발 미이행을 이유로 지분을 10%로 강제 축소한 것으로 알려짐.
- 말레이시아는 1995년에 이란 유전 개발에 참여한 이래로 이란 에너지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Petronas는 1995년 이란 Sirri A&E 유전개발 사업, 1997년 South Pars 2·3단계 개발사업, 2001년 Munir 광구 탐사계약을 체결함.
 - 또한 말레이시아 SKS Ventures는 2007년에 Golshan 및 Ferdowsi 가스전 개발을 체결

함(계약규모 약 160억 달러로 가스개발이 60억 달러, LNG 플랜트 계약이 100억 달러).

- 이념적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는 2009년 4월, 이란 유전 및 South Pars 12단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한편 이란은 베네수엘라 Ayacucho 7block 유전개발(원유매장량 300억 배럴로 추정)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함.

표 7. 주요 국가별 이란 에너지상류부문 참여 실적(1995~2008년)

개발기업 국명	참여건수	유형별 건수	투자금액 (백만 달러)
중국	6건	개발 3건, 탐사 3건	3,857
이탈리아	6건	개발 4건, 탐사 2건	2,305
말레이시아	5건	개발 4건, 탐사 1건	16,828
프랑스	4건	개발 4건	2,022
스웨덴	4건	탐사 4건	n, a
노르웨이	3건	개발 1건, 탐사 2건	230
러시아	2건	개발 1건, 탐사 1건	625
영국	2건	개발 2건	560
일본	2건	개발 2건	160
기타	10건	개발 3건, 탐사 7건	778
합계			27,365

주: 1) 이란 에너지상류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현황은 2008년 9월 현재 총 31건의 탐사·개발 사업에 19개국, 27개 국제에너지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추산됨.

2) 참여건수는 합작 컨소시엄의 경우 국가별로 산정하고 투자금액은 지분으로 나눔.

자료: GAO(2007); 한국석유공사(2008,12); Katzman(2009) 등을 토대로 필자정리.

4. 평가 및 시사점

- 미국과 UN의 제재조치가 이란의 교역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나 에너지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간접적 보이콧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미국과 UN의 제재조치로 인해 이란 에너지부문 투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서방국가 및 친미국가의 이란 에너지부문 투자가 축소 또는 보류되고 있음.
- 핵개발 사태와 고유가라는 정치·경제 여건하에서 이란과 중국 간의 협력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이후 핵개발 사태와 에너지안보를 바탕으로 이란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

해관계가 서로 부합함에 따라 양자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이란이 직면한 정치·경제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임.
- 강정보수파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은 대외경제협력, 특히 에너지개발을 위한 협력대상을 반미 내지 비서방국가 중에서 물색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유망 협력파트너에 해당됨.
-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핵사태 관련 중국의 정치·외교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차기 글로벌 패권을 구상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은 중동지역 내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평가됨.
- 이란은 막대한 에너지자원(세계 2위 석유·천연가스 매장량)과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만큼 중국의 에너지안보 강화와 수출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큼.
- 중국은 이란 핵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및 이란의 조력자 역할을 적극 취함으로써 이란 내 입지를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 우리 역시 이란과의 경제협력 여지가 큰 만큼 향후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에 대비한 이란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잠재국가로서 이란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란은 중동 내 주요 에너지협력 및 건설플랜트 수주, 상품수출 대상국으로서 가치가 상당하며 향후 경제협력의 잠재력 또한 대단히 큼.
- 2008년 우리의 대이란 수출금액은 43억 달러(총수출의 1.0%)로 이란은 중동 국가들 가운데 UAE와 사우디에 이어 우리의 제3의 수출대상국임.
- 2008년 우리의 대이란 원유수입액은 69억 달러(총 원유수입의 8.0%)로 이란은 우리의 제4의 에너지도입 대상국임.
- 2009년(11월 현재) 우리의 대이란 플랜트 수주금액은 26억 달러로 전체 해외 플랜트 수주금액의 9.0%를 차지함.
- 이란 진출 확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국제정세하에서는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 및 진출 확대 추진은 무리가 있음.
- 그러나 향후 이란의 핵사태 해결 및 국제사회 복귀에 대비한 이란 진출 확대방안을 마

련하고 잠재국가로서 이란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란과 미국이 핵문제를 둘러싼 강경입장에서 선회하여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회담)을 가지는 등 이란 핵구도의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우리 역시 대이란 전략을 수립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KIEP**